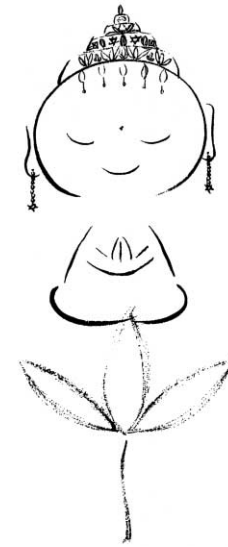


# “지금까지 이런 선화는 없었다”

## 묵연스님의 선화 전시회 및 시화명상집 출판기념 사인회



세계의 미술시장을  
깜짝 놀라게 할  
독창적이고도  
독보적인 선화의 진수!!



불교TV에 출연하여 선사님들의 선시와 세계의 명사들을 일상적 언어로 풀어내며 불자님들의 뜨거운 성원을 받았던 묵연스님이 이번에는 누구도 시도한 바 없는 **독창적인 선화**를 선보입니다. 붓으로 그렸다고는 믿기지 않는 컴퓨터 그래픽과 같은 깨끗한 선의 흐름과 완벽에 가까운 일필휘지의 일원상은 당장에 세계미술 시장에 진출하여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명작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결코 허황된 과장이나 광고문구에 그치는 미사여구가 아니니 **보시는 바와 같은 일원상은 모든 미술의 근본인 선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는 기술이며 고도의 집중과 균형을 이루어야만 비로소 가능한 작품입니다.**

가장 절제된 단순한 선으로 고요한 수행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묵연스님의 선화는 작은 흔들림으로 인한 조금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는 선화의 진수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길이 5cm 지름 8mm의 오직 한 붓으로만 선의 굵기를 자유로이 구사하는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독보적인 기법은 붓이라고는 한번도 잡아본 적이 없었던 묵연스님이 2년이 채 되지도 않는 작품활동 기간에 스스로 터득한 오묘한 신필인 것입니다.

생명공학 분야의 한 과학자가 세계를 놀라게하고 그 과학자는 한국의 과학자이며 우리민족의 예술적 우수성은 분명 세계적임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문화예술계의 후진성은 어서어서 털어버려야 할 지난 날의 가난과도 같은 그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제적 공핍으로 인한 정신적 사대주의로 문화 민족의 근간을 상실한 듯한 근대사를 직시하고 과학이 생명을 살리듯 문화예술이 생활의 행복을 살릴 수 있도록 그리하여 꽃같은 세계(世界-花)의 향기가 인류의 미소가 되어 번지게끔 하는 것은 세계경제 11위의 나라로써 미룰 수 없는 숙제인 것입니다.

시성 타고르의 기탄잘리는 정작 인도에서는 20년을 잠자다가 서양의 눈에 띄어 노벨상을 탄 뒤에야 그의 고국이 찬사를 바치지 않았습니까?!

묵연스님의 선화는 그러한 전철을 밟고 싶지 않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름다운 당신을 초대합니다!!

- 장소: 갤러리 라메르 3층 전관 (인사동 사거리에서 공평아트 방향 중간에 위치)
- 일시: 2005년 10월 5일 오후 2시 ~ 10월 11일 오전 12시까지
- 행사: 10월 5일 오후 3시 묵연스님 시화명상집 사인회
- 문의: 011-9366-1129 / 02)730-5454

※ 오픈당일 갤러리를 찾는 분들께는 묵연스님의 선화 달력 (2005년)과 아름다운 명상음악가 홍순지님의 CD 1집과 2집을 무료로 선물합니다.

※ 화환과 화분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